

문화산책

박성언

음악감독



ai가 뮤지션들의 작품활동이나 창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작년에 광주의 한 가요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사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출품된 음원들은 어떻게 점수를 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물론 곡을 출품한 뮤지션들 중 본인이 작품을 ai로 제작 했다는 것을 밝히는 작가는 없었다. 어쨌든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권한으로 넘기고 부드럽게 진행되었는데 불과 1년도 안 지났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주변에서도 Suno, Udio, Soundful, Mureka 등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사를 생성하고 음원까지 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결과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속도라면 이런 약간의 버그들은 금방 수정되고 ai가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컴퓨터를 그렇게 잘 다루는 편이 아니고 고

ai help you? (인공위기 음악)

질적인 귀차니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은 해매고 있지만 나 또한 분명 ai와의 동행은 필연적인 것이다.

ai는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수많은 학습을 통해 미리 공유된 수많은 정보들을 데이터와 하고 최적의 값을 도출해내다 보니 인간의 속도는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 여기에서 나름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주문이다. 그렇다면 ai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주문할 것인가? 주문이 구체적이고 폭넓을수록 답도 구체적이고 정확할 것이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과 생각 그리고 고통을 동반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에 박수를 보내고 결과물을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인간의 작품인지 신의 작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인간의 고통과 성찰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ai로 생성하지 못하는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영혼적인 에너지 즉 아우라를 갖게 된다. 어쩌면 ai 세상은 진짜 노력하는 아티스트와 적당한 흉내 내는 아티스트들 사이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해줄 것이다.

나에게 요즘 가장 큰 화두는 나를 복잡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일해야 할 때 ai는 벌써 그 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의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부족한 경험이지만 극복하고 이겨내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ai는 분명 반갑지 않은 않은 존재일 것이다.

기후위기처럼 인공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고통, 슬픔, 사랑, 아픔, 시련, 기쁨, 상처, 웃음, 연민, 희망 등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이 감정들은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언젠가는 수많은 데이터의 학습과 기술의 발전으로 슬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주고 기쁨 때는 웃음을 지어주는 로봇이 개발되었지만 그 어찌 사람이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 인간은 ai를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무한경쟁시대, 각자도생시대라는 단어들이 청년들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 어쩌면 좀 더 경험이 많고 시간을 지나온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어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미래세대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힘을 실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살아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은 인간을 항상 깨어나게 한다. 부족하기에 아름답고 아프고 다치기에 찬란하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세상에서는 인간다운 것, 조금 느린 것, 더 정확하지 않을 것이 더 가치 있어 질 것이다. 1999년에서 2000년에 들어설 때 밀레니엄 버그로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컨트롤했고 벌써 2026년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도 분명 잘 헤낼 것이다. 오늘날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간을 응원합니다.

기고

남궁윤

기획자·예술감독



예술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공간은 더 이상 하나의 장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의 예술은 회화와 퍼포먼스가 만나고, 프로젝트와 미디어가 겹치며, 전시와 실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어떤 날에는 갤러리에서, 어떤 순간에는 거리와 시장에서, 때로는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아 예술은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전시가 끝난 뒤에도 질문은 계속된다. 예술은 과연 어디에 남는가.

전시는 하나의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회화와 퍼포먼스, 미디어와 프로젝트가 같은 시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회화는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퍼포먼스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으며, 미디어와 프로젝트는 기록을 넘어 다음 시도로 이어진다. 전시는 장르를 나열하는 형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예술 언어가 충돌하고 연결되며 새로운 감

각과 방향을 만들어내는 장이다.

광주에는 ‘예술의거리’라는 이름을 가진 공간이 있다. 2025년 예술의거리 예술감독으로 나는 이 공간을 완성된 장소라기보다 여전히 진행 중인 실험의 장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예술의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기보다, 실험이 허용되고 실패가 축적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 예술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 갱신되는 시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정책은 종종 결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았는가가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전시는 무엇을 남겼는가 아니라, 이후의 실험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예술은 공간을 장식하거나 도시의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이 도시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을 실제로 실행해보는 과정이다.

전시를 기획하는 일 또한 하나의 장면을 완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회화가 다시 몸과 만나고, 퍼포먼스가 미

디어를 통해 확장되며, 프로젝트가 전시 이후에도 도시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예술가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전시는 언젠가 끝난다. 작품은 철수되고, 며칠 뒤 그 공간은 다시 다른 일상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예술이 남긴 것은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예술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음 전시와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질 때, 예술은 미래가 된다.

예술이 남긴 것은 장면이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이 방향이 더 많은 실험으로, 더 열린 협업으로, 그리고 더 긴 시간의 프로젝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시가 끝난 자리에서 다음 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회화와 퍼포먼스, 미디어와 프로젝트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 지금 이곳에서의 작은 시도들이 언젠가 도시의 감각을 바꾸는 흐름이 되기를 믿으며, 그 가능성을 향해 계속해서 다음을 준비한다.

예술이 남긴 것은 장면이 아니라 방향이다

사설

글로벌경제 취약 지역산업 리스크 관리 절실

글로벌 경제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 자치단체보다 크다. 주력산업 수출 비중이 높고 산업 포트폴리오도 단순히 관세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2024년 기준 광주·전남 수출 비중은 각각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8.6%, 59.7%로 전국 평균(36.4%)보다 높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구조라는 얘기다. 또 특정 주력산업 의존도가 높아 광주는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47.7%)에 가깝고 전남은 석유정제 31.2%, 화학제품 29.5%, 철강19.3%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80%가 넘는다.

문제는 이들 산업의 대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해 광주의 수출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동차,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선전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석유 정제·석유 화학·철강 산업이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가격 경쟁, 관세·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및 수출 회복세가 둔화했다.

이는 생산 및 부가가치 하락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들 산업이 집중돼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1단위 상승할 때 광주·전남 주력 산업 수출은 평균 0.0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며 지난해 수준의 변화가 올해 나타날 경우 주력 산업 수출 규모가 약 11%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4년 지역 수출액 476억 달러를 기준으로 볼 경우 52억4000만달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외변수로 인한 지역경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주 ‘일상서 체감 노후정책’ 눈에 띈다

나주시의 어르신 복지정책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단순 소득 지원이 나 시설 확충을 넘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일자리로 활력을, 경로당으로 돌봄을, 안전 인프라로 안심

을, 질병 예방으로 건강을 다지는 것이 핵심포인트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인한 소득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025명에서 4710명으로 685명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시설 환경 관리, 돌봄 보조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확대해 어르신의 경륜과 역량이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또 어르신 복지서비스에 디지털 혁신을 더한 스마트 경로당도 지난해 20개소를 개통한 데 이어 올해는 40개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응급 안전 시스템과 화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여가·문화프로그램, 비대면 소통 기능을 접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복지 공간’을 말하는데 그냥 ‘윽터’였던 경로당의 기능을 ‘생활 돌봄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TV, 무선 인터넷 등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는 등 주요 인프라를 구축했고 올해도 선정돼 받은 7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추가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지역 내 621개 경로당 전체에 김치냉장고 보급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간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레인지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출입구 정비와 손잡이 설치 등 안전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한 예방 복지도 강화해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으며 5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나주시의 복지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

취재수첩

낙농업 활로 찾기에 지혜 모을 때

윤용성
산업부 기자



국내 낙농업이 수입산 우유 무관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수입 멸균우유가 빠르게 국내 시장으로 파고들면서 고물가 상황 속 원가 압박에 큰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수입 멸균 우유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부터 미국산 우유 관세가 전면 철폐됐고, 오는 7월에는 유럽산 우유까지 무관세로 들어온다.

이에 맞춰 멸균우유 수입량도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 2016년 1214t에서 2024년 4만8671t으로 8년 사이 약 40배 늘어났다.

여기에 2010년 65.4%였던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49.9%로 대폭 줄었다.

특히 수입 멸균 우유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길어 재고 부담이 적다는 점과 가격도 국

내 우유보다 2000원 정도 저렴해 원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 거래처인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 자영업자들이 수입산 멸균우유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원가 절감이 우선되는 카페, 제과·제빵업체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저렴한 우유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입산 우유 무관세가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낙농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국산 우유의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물론 정부가 지난 2023년 도입한 원유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 역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검토 수준의 단계가 아닌 다각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낙농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낙농업 실현을 위해 서라도 원유 생산기반 유지와 함께 유제품 자급률 제고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낙농업의 활로 찾기에 정부와 낙농업계가 지혜를 모아지길 바란다.

독자투고

도로교통법 개정,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각종 제도와 법률 개정 소식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관심이 높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확한 개정 내용보다 자극적인 제목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먼저 확산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약만 먹어도 처벌된다’, ‘전동킥보드가 전면 금지된다’는 식의 게시글이 사실처럼 공유되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다. 핵심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약물운전과 상습적인 위험 운전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데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뿐 아니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규제하고,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맥락은 빠진 채 과장된 정보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특정 집단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새해를 맞아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다. 법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올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일 것이다.

정민우 신안경찰서 순경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월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문 화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